산학경영연구 제22권 2호(2009.12).

문화 · 생태를 이용한 도시마케팅 사례 연구*

허중욱
강원대학교 관광학과 조교수
E-mail: hcuk@kangwon.ac.kr

이 연구는 2009년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의 녹색성장정책 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도시성장정책의 생태사업, 문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녹색교통사업 등 4개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릉시의 생태적 복원사업으로 위대한 친환경 생태복원사업은 경포해안의 불량숙박업소 철거와 이 구역에 해안송림을 재생시킨 사업이다. 둘째, 강릉시의 세계적인 문화자원은 녹색기술과 환경보전 중심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자각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강릉시는 해안을 연접하고 있고 해양이미지가 강하므로 향후 해양에너지로서 조력, 풍력, 심층수 등 다양한 사업접근이 가능하다. 넷째, 녹색교통사업으로 친환경 전력 활용, 그린카 이용 등의 사업이 추진 및 예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강릉시의 녹색성장정책은 EcoCulture와 매우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릉시의 대다수 정책중 생태사업과 문화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강릉시와 유사한 전국의 중소도시들이 지향해야 할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이 생태와 문화가 결합하여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 도시정부는 생태적 지속성,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색인어〉 문화 · 생태, 녹색성장, TBL, 도시마케팅

* 이 연구는 2009년 제38차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한 것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세계의 경제학자와 각종 포럼은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변화에 우려를 표명했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Mathus, 1798; Meadows, Meadows, Randers, & Behrens Ⅲ, 1972; 교토의정서, 2002)[1]. 우리나라 정부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였다(녹색성장위원회a, 2009). 그 동안 지식경제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논의와 대책수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의 녹색성장정책과 함께 지역의 도시차원에서 실천방안으로서 실제로 구현해야 할 대안들은 위상체계상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세계의 각 도시들은 경제적 침체와 슬럼화 되어가는 도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며 도시성장모델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토대로 기존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문화'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갖는 생활방식이자 도시가 갖는 정체성을 살리는 효과적인 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의 재생을 위하여 문화이상의 생기를 부여해야만 도시를 회생시킬 수 있고, 도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즉 도시의 품위와 지속성은 문화와 더불어 21세계의 최고의 키워드인 '생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세계의 선진지역 도시들은 건물의 갖는 품위를 유지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2]을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한 도시가 지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업도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문화' 컨셉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적 컨셉인 '생태'를 결합하여 EcoCulture[3] 개념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

---

1)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1997년 교토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다.
2) 녹색건축은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에 녹색식물을 식재하여 녹색의 신선함과 생명의 존중, 탄소발생 억제 등을 목적을 구현하는 건축의 한 방법이다.
3) EcoCulture는 생태와 문화를 결합한 신조어로 생태문화도시 또는 생태순응형 도시 등으로 불

대'의 핵심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도시가 실천해야 할 실천대안으로 문화·생태(EcoCulture)개념을 도시관리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생태문화도시는 모든 도시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개발시대의 최고의 도시관리 컨셉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중소도시 중 다른 도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의 녹색성장을 위하여 지역단위별로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미래성장 캐치프레이즈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지역수준의 도시성장모델을 찾기 위하여 지역도시 중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강릉시는 도농복합적 지역특성, 농산어촌이 혼재하는 경제적 특성, 인근도시의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특성, 인구규모의 중위성 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도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간적 연구범위로서 중소도시인 강릉시로 선정하여 이 사례연구 결과를 인근 도시에 적용하는데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뿐만아니라 강릉시의 경포지역은 전국 유일의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4]로 선정되었다(강릉시, 2009).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대에 시행된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국내의 많은 도시들이 LOHAS[5]를 도시생활의 패턴으로 개인과 도시의 생활패턴을 변모시킨 시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각종 공공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도시의 문화정책이 구현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으로서 친환경적 인식이 사회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도시관리 정책을 연구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EcoCulture를 이용하여 도시의 녹색성장을 모색하고 있

리기도 한다.

4) 이를 위하여 강릉시는 강원도,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강릉시는 2010-2012년간 경포 일원에 인구 2만명 정도가 상주하는 녹색도시를 건설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일자를 창출하는 '녹색뉴딜정책'을 조성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세계적인 녹색성장 표본도시를 선정하여 향후 16개 시도로 확산기킬 방침이다.

5) LOHAS는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어로 개인의 건강과 환경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는 도시를 선정하여 연관개념과 사례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론적 접근에서 EcoCulture, 녹색성장, 선행사례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강릉시 도시정부가 EcoCulture를 어떤 분야에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것은 대규모 여러 지역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사업시행 전후의 관계를 시사하기 위하여 시각자료를 통하여 내용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사진자료가 현대사회의 중요한 교육수단이며 다수의 기술내용보다 시각적으로 현대인은 인식하는 측면에 생활에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Ⅱ. 이론적 접근

1. EcoCulture의 개념

EcoCulture는 Ecology와 Culture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생태문화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용어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EcoCulture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생태, 문화, EcoCulture에 대한 인접개념에 대한 논의되어야 한다.

1) 생태

생태학(ecology)은 1869년 헤켈(E. H. Haeckel)에 의하여 만들어진 말로 '생물과 환경 및 함께 생활하는 생물과의 관계를 논하는 과학'이라고 정의되었다(이정덕, 2009 재인용). 이 용어는 실제적으로 생물의 종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실천해야할 수용력을 연구하는 영역으로 사용된다. 자연과 인간의 위상체계에서 인간을 자연위에 위치시키지 않고, 인간을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 두어 자연에 순응해서 생활하게 하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개념은 서구에서 도입된 개념이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미덕으로 '까치밥'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날짐승이 먹을 감을 몇 개 감나무에 남겨두곤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수확할 때 벼나 감자, 고구마 이삭을 남겨두곤 하였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짐승들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을 오래 간직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가?'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은 현대 인간의 생활과 과다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탄소배출량이 급격히 증가시키고 결국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물학적 종의 다양성과 지속성, 원형성이 유지되도록 생활속의 실천양식이 생태의 내용이 된다.

2) 문화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후천적 산물의 총체를 의미한다. 문화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Tylor(1879)에 의하여 정의되었다. 그는 문화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민족지학적 관점에서에서 채택되는 문화 또는 문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심 및 기타 능력 및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총체이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문화개념과 현대적 차원에서 문화를 보는 시각을 견지한 문화에 대한 개념정의는 Leininger(1991)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Leininger가 제시한 문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사고, 의사결정 및 유형화된 방식의 행동으로 유도하는 특정집단의 학습되고, 공유되며, 전승된 가치, 신념, 규범 및 생활방식

우리나라의 문화개념은 문명개화(文明開化) 또는 문치교화(文治敎化)의 개념에 영향을 받아 문화는 다분히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명백히 하는 측면에 있다. 이와 더불어 통치적 측면에서 사목권력을 통하여 인민을 사회시킨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는 문화의 물질기술문명의 진화와 교양을 통한 사회화 등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화의 개념에 근거해 볼 때 문화는 인간에 의하여 학습, 공유, 전승되어 인간의 사고, 의사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의 기능은 사회적 사고방식, 물질적 기술개발 등이라고 볼 수 있다.

3) EcoCulture

EcoCulture는 문화의 양태로서 생태적 삶의 방식, 신념, 행동, 자연생태와 인간의 조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환경위상체계로서 (신)→인간→자연이라는 위상에서 자연→인간 또는 자연-인간의 조화로서 자연환경의 위상을 변화시킨 개념체계이다. 반영운(2009)은 Ecoculture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였다.

EcoCulture: 생태적 삶의 방식, 생태적 신념/행동,
자연생태와 인공의 생태적 어울림(EcoCultivation)

이러한 EcoCulture의 개념적 접근은 앞서 언급한 생태와 문화의 개념을 결합한 의미로 해석된다. EcoCulture의 개념은 협의의 측면에서 앞서 기술한 내용으로 생태적 삶의 방식, 신념, 행동, 자연생태와 인간의 조화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 생활방식으로 친환경적인 사고, 규범, 의사결정,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측면에서 EcoCulture는 생태적 수용력과 문화적 창조성을 결합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공영하는 생활방식(symbiosis)이라고 할 수 있다. EcoCulture의 광의적 개념은 자연생태에 대하여 종의 유전적 다양성, 종의 지속성, 종의 원형성 등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수용력을 유지하고, 인간생활에 대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여 도시의 개성을 견지하는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LOHAS도 일종의 EcoCulture의 실천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EcoCulture는 자연을 더욱 자연스럽게, 도시의 문화를 개성있게 양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상호 공존공영하는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녹색성장 정책

1) 녹색성장의 필요성

녹색성장은 기존의 물리적 양적 성장과 심미적 질적 성장의 개념을 지구의 환경변화, 기후변화에 적합하게 전환시킨 성장패러다임이다. 한마디로 친지구환경 시스템적 성장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인구의 증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생산활동, 무분별한 자연훼손의 결과로 기후변화가 야기되어 이것이 인류의 생존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의 각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녹색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즉 선진국은 새로운 녹색기술을 개발하여 일자리

를 창출하고 특허권을 판매하고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구아미, 2009).

전지구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은 인류를 종착지로 구축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성취하기 이하여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가장 적합한 성장 개념은 녹색성장이다. 이것은 용어상 모호한 면이 있었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호성과 선언성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전환시켰다는 면에서 현실적 용어로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선진국은 탄소저감, 저화석연료, 환경복원 등 녹색기술 개발에 국제무역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신기술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녹색기술의 개발 및 적용 등이 절실한 상황이 위치해 있다.

2)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녹색 경쟁력 지수'가 이용된다. 이것은 '저탄소화 지수'와 '녹색산업화 지수'의 합으로 계측된다(녹색성장위원회a, 2009). 녹색성장 측정 지수에 근거해 볼 때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을 통한 저탄소화 결과로 이루어진 경제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녹색성장의 개념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을 통하여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다(녹색성장위원회b, 2009).

(1)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Synergy) 효과 극대화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 가치 사슬의 녹색화 추진

(2)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국토, 도시, 건물, 주거단지 등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의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산업 소비기반 마련
-버스·지하철·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교통효율 개선 추진

(3)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
-녹색 가교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해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

위에서 언급한 녹색성장의 개념 정의는 다분히 녹색기술 의존적인 정의이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우호적인 기술, 경제성장을 증진시키는 거래 등으로 대별되는 개념체계이다. 녹색기술에 바탕을 둔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녹색성장으로 개념화한다면 인간의 문화적 다양성은 경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문화적 입장을 개념에 포함하여 새로운 녹색성장의 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녹색성장의 원칙

위에서 언급한 녹색성장의 개념은 녹색기술 의존적인 개념 정의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의 문화적 개성을 경시하고 녹색기술 지향적 사회를 찬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녹색성장의 원칙을 제시하여 이를 보완한다.

1987년 UN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제시된 이래 기업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진화되어 TBL(Triple Bottom Line)로 세분화되었다(Sawitz & Weber, 2008). TBL은 사업을 성공시키고 존경받기 위한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경영의 3대원칙으로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를 지칭한다. 이와 비교하여 새로운 녹색성장 원칙 또한 환경적 보호, 사회적 지지, 경제적 성과 등으로 평가하고 이를 원칙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

(1) 생태적 지속성

-생태적 지속성은 생물의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현재의 세대가 향유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후세대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태적 수용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녹색기술(저탄소, 복원 등)과 생활실천을 통하여 유지할 수 있다.

(2) 문화적 다양성

-인간의 문화적 다양성은 도시의 다양한 개성이 녹색기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으면서 역사문화, 생활문화, 창조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의 문화적 역량과 향후 국제교류, 후세에 대한 교육 등에 유용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이 된다.

(3) 경제적 유효성

-경제적 유효성은 녹색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부담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녹색기술이다. 경제적 유효성은 현재의 성장이 미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성장 및 개발에 대하여 균형있는 지침을 줄 수 있다.

〈표 1〉 도시재생 유형과 관련 사례

도시재생 유형	사례	해당국가	기존용도와 신규재생용도
산업시설의 재생	The 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영국	제분공장→ 미술관
	Granville Island	캐나다	제재소 및 중공업 공장→ 복합문화상업공간
	Die KulturBrauerei	독일	양조장→ 상업문화공간
항만시설의 재생	The Sage Gateshead	영국	석탄과 밀가루를 운반하던 항만지구→ 음악관
	The Lowry Performing and Visual Arts Center	영국	공업지구의 항만시설(부두)→ 문화공연전시공간
	Wales Millennium Center	영국	철과 석탄을 운송하는 항만시설→ 복합문화공간
	Darling Harbour	호주	시드니의 물류중심항공→ 상업문화공간
혐오시설의 재생	Tate Modern Gallery	영국	화력발전소→ 미술관
	Parc de la Villette	프로랑스	도살장 및 가축시장→ 첨단 복합도시공원
	Queen Elizabeth Park	캐나다	채석장→ 도시복합공원
	Greenwich Millennium Village	영국	철근적재소, 연료재활용, 쓰레기 처리장→ 주거지역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주거시설의 재생	Peckham Library in Southwalk	영국	노후화된 주거지역→ 커뮤니케이션센터의 역할을 하는 복합도서관
	The Barbican Centre for Art and Conferences	영국	전쟁폭격으로 파괴된 주거지역→ 복합문화센터
	Kunst Haus Graz	오스트리아	낙후된 빈곤층 밀집 주거지역→ 미술관 및 복합문화공간(Artzone)
	Hackesche Hofe	독일	도심내 주거지역→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상업시설
공공시설의 재생	Musee d'Orsay	프랑스	철도역→ 미술관
	사이타마	일본	철도기지→ 공공기관 및 복합상업문화시설

자료: 대한주택공사(2007). 문화공간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연구: 20.

3. EcoCulture를 이용한 도시재생 사례

세계의 지역발전 사례에서 생태 또는 문화적으로 지역을 재생한 여러 가지 사례가 존재한다. EcoCulture를 이용한 도시재생 사례에서는 문화를 테마로 하여 도시를 변모시킨 사례와 생태를 테마로 도시를 변모시킨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녹색기술을 통하여 도시를 변모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초점이 생태와 문화를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중소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면에서 문화, 생태를 중심으로 도시 또는 지역을 재생시킨 사례를 관찰한다.

1) 문화(Culture)를 통한 도시재생 사례

대한주택공사(2007)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도시재생은 도시의 산업시설, 항만시설, 협오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을 '문화적 컨셉'을 중심으로 리모델링하여 도시를 재생시켰다. 성공적으로 도시를 재생시킨 지역은 대체적으로 공업도시로 명성이 있다가 경기침체로 쇠락을 길을 걷게 된 도시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한 도시주민의 지지,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기존 시설에 대한 보호, 향후 도입 시설에 대한 정당성, 문화적 역량의 구축과 산업화 등이 주요 시사점으로 확인되었다.

2) 생태(Eco)를 통한 도시재생 사례

생태도시는 자연환경의 유한성을 인지하고 이를 보호 및 보전하는 도시를 지칭한다. 현대사회의 경제적 성장, 노동시간의 국제 표준화, 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은 양적 충족보다는 질적 품격을 희구하는 방향으로 자아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에 따라 등장한 개념들이 웰빙, 로하스 등의 생활속의 질적 생활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질적 품격추구에 부합하도록 생태를 주제로 도시를 재생하고 복원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생태도시 조성 유형은 신도시형, 재개발형, 도심재생형, 대도부 주변 우수자원 보유지역형, 낙후지역형 등을 구분할 수 있다. 각 사례의 공통된 특징은 사전계획을 전문가와 철저히 준비하였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도시주민과 생명체의 공존생활을 가능케 하여 지역의 환경보호에 따라 자원의 가치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실천했다는 특성이 있다.

〈표 2〉 에코시티 조성 사례

에코시티 유형	사례	해당국가	주요 특징
신도시형	Messestadt Riem	독일	환경불리지역 경제 및 환경 회생 공항이전지→엑스포장
	Viikki	핀란드	녹지공간 활용한 미래형 실험주택
재개발형	Hammarby Sjostad	스웨덴	자원순환/에너지절감 독자모델 개발 공장지대→환경도시
	Bo01 Malmo-Bo01	스웨덴	경제적 활기, 문화적 다양성, 생태적 건강 조선업 항구→미래 첨단생태도시
도심재생형	고베시-마노지구	일본	주공혼재지역→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토쿄도-세타가야구	일본	서민/고급주택 혼재→ 주민참여형 도심재생 생태공원 조성
	쿄토시-아네야코지지구	일본	지역공생의 토지이용 및 주민교류
대도시 주변 우수자원 보유지역형	효고현 도요오카시	일본	황새서식지 복원 및 브랜딩(춤,박물관)
	London Borough주	영국	콘크리트습지→도심생태공원
	홍콩 습지공원	홍콩	대체습지 개념으로 홍콩습지공원 조성
	애리조나주 세도나	미국	관민 경관자원 관광자원화, 소단위개발
	에센	독일	석탄산업/공단→광산박물관, 예술센터
	니가타현 야스즈카	일본	대설 농업지대→눈, 도농체험 관광화
	Hannover Kronsberg	독일	지형/기후를 고려한 생태설계도시
낙후지역형	가나가오현 가마쿠라시	일본	베드타운→환경창조도시
	야마가타현 타치가와	일본	풍력활용 에너지화 및 형상화
	Eckernforde	독일	전문적 환경실태 조사후 도시계획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새모델
	Lofoten Islands	노르웨이	회사를 설립하여 절경 관광지화
	Napfbergland	스위스	낙후지역→지역자원활용 발전전략
	Crystal waters	호주	시골지역→기업형 공동체 생태마을
	Projeto Tamar	브라질	바다거북사냥지→친환경 관광지

자료: 환경부(2008). 에코시티 해외사례집: 23-154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Ⅲ. 사례분석: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강릉시

1. 조사지역의 개관

강릉시는 강원도 영동지역의 동해안 방향으로 급경사를 이룬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동해안과 연접해 있다. 본 연구에서 강릉시 지역을 EcoCulture의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첫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문화유산이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강릉시의 전통제례인 강릉단오제는 UNESCO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에 등재되었다. 군소 역사적 문화유산이 다수가 산재해 있는 것은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전형적 특성이다. 둘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탄소 녹색시범

도시'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완료한 사업이 친환경적, 문화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EcoCulture를 관찰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셋째,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안관광자원이 경포해변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와 문화의 결절점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역점사업 중에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강릉단오제 개최장소에 강릉단오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과거 대성황사가 소재하던 구강릉시청터 인근에는 전통건축의 복원이 계획되어 있다. 이 뿐만아니라 동해안 최고 해수욕장인 경포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경포호 주변 도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고, 수변에는 호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강릉시는 전통적인 농어업의 1차산업 비중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장, 건설, 제조업 등 2차산업은 작은 규모이지만 3차 서비스산업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강릉시가 관광지적 성격이 강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또한 강릉시는 학원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강릉시내에는 강릉대, 관동대, 강원도립대, 영동대 등 지역혁신의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각 대학은 지역혁신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도시의 문화 및 공공예술을 위한 인력공급원이 되고 있다.

강릉시의 자연환경적 특성은 산악과 해안이 연접해 있고, 대관령의 높은 해발로 인하여 바다의 공기가 산을 자연스럽게 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고온건조한 높새바람이 불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 풍력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수와 파도, 해안의 바람이 있어 풍력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교적 맑은 날씨가 많아 태양광 에너지 또한 유효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청정해안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심층수 활용, 해양의 활용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강릉시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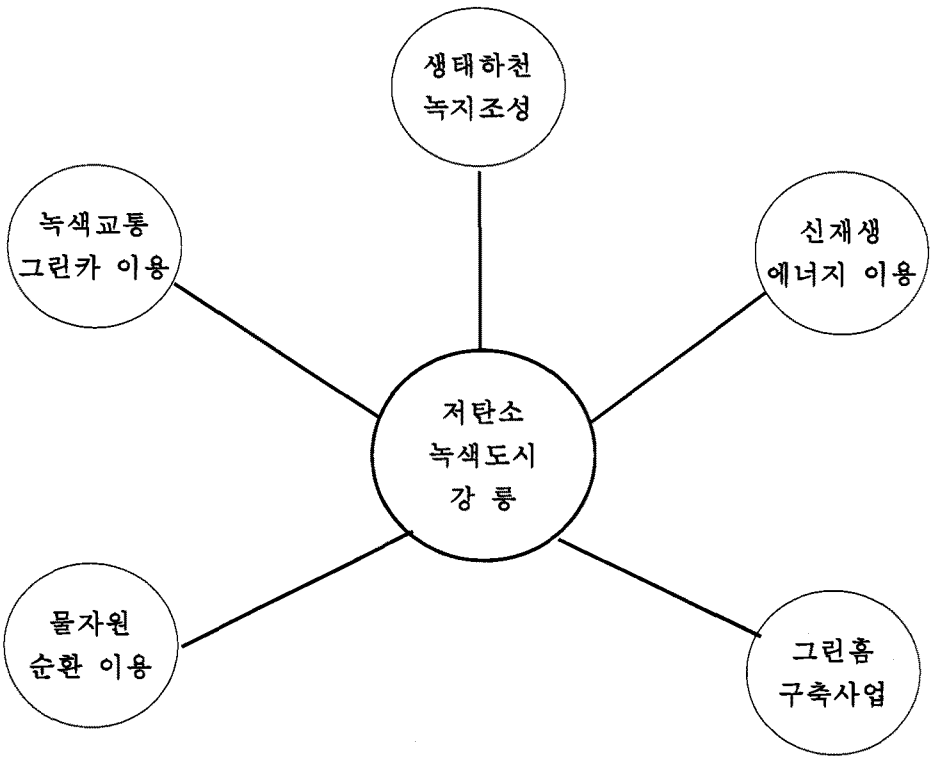
강릉시는 2020년까지의 장기 비전을 'G3+N2'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강릉시a, 2009). 여기서 G3(성장동력)으로 경포 관광의 국제화(Grade up), 소나무 명품 브랜드화(Green), 강릉단오제의 세계화(Global)을 지칭한다. N2(뉴 스타트)는 환동해 물류복합 거점도시, 환태평양 국제 교류형 R&D 특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강릉시의 EcoCulture를 이용한 도시의 녹색성장정책은 다양한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업중 EcoCulture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실제 사업으로 운영되

고 있는 정책사업을 관찰하여 보고한다.

강릉시는 '저탄소 녹색도시 강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태하천 녹지조성, 신재생 에너지 이용, 그린홈 구축사업, 물자원 순환 이용, 녹색교통 그린카 이용 등을 모델로 녹생성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강릉시a, 2009).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강릉시 녹색성장사업 모델



자료: 강릉시(2009). 강릉소식 제일강릉: p.6.

전국유일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강릉시a, 2009).

첫째, 보행자, 자전거, 그린카(전기, 하이브리드 등) 위주의 녹색교통사업 추진

둘째,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연구소 이전과 녹색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업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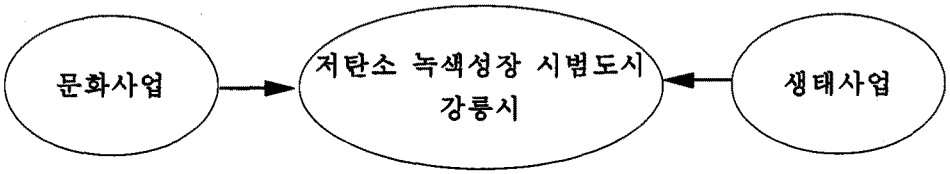
셋째,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 사업, 저탄소 건물 보급 및 개량사업

넷째, 하천, 저수지, 호수, 바다를 연결하는 블루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생태 습지 보전 및 정비, 공원, 송림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현재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고찰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일반적으로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다수 중소도시는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녹색기술을 지역발전의 사업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녹색기술의 개발수준과 채택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지역단위 도시에서는 ① 생태복원, ② 문화사업, ③ 신재생에너지, ④ 녹색교통 등과 관련한 사업이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사례지역이 강릉시의 문화적 자산을 녹색성장의 주요주제로 간주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사업에 포함하였다. 이로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강릉시의 녹색성장 정책사례는 크게 ① 생태사업, ② 문화사업, ③ 신재생에너지사업, ④ 녹색교통사업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2〉 강릉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사업 현황



1) 생태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강릉시의 생태사업은 자연복원, 소나무 명품도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자연복원 관련 사업은 경포해변 산림복원, 경포천 및 경포호 생태복원, 남대천 생태복원사업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복원

① 경포해변 산림복원

경포는 1969년 지정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지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 후 박정희 전대통령의 개발사업 지시로 1979년 9월 경포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재가되었다. 이후 경포개발사업의 내용으로 추진되었던 불량건물 정비는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해변의 불량건물은 바랑의 조망권, 건물의 미적 감각, 해안의 식생 등에 장애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강릉시는 2007년 1월 공원관리사업소를 관광사업추진단으로 개명하였다. 관광사업추진단(관광사업·경포정비·공원·통일공원)내 경포정비팀을 신설하여 불량건물 철거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2007.1 - 2008.6간 경포 불량건물은 모두 철거되어 해변의 미관은 변모되었다.

〈표 3〉 경포해변 철거건물 현황

구분	건물동	구역			소요예산
		해안	송림	강문	
1979	175(추정)				
1979-1981	117				
2000-2006	14	1	12	1	
2007-2008	44	16	23	5	126억

자료: 명품경포백서(강릉시b, 2009): 12-31을 참조하여 작성.

이로서 강릉시는 불량건물로 인하여 훼손되었던 경포해변의 생태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경포해변의 조망권을 확보하여 해안의 미관을 현격하게 격상시키는 혁명적인 사건이 되었다. 강릉시는 25,000㎡면적에 2008년에 사업비 742백만원을 투입하여 소나무 915본, 자생식물 52,250본을 식재하였다. 강릉시는 도시의 친환경적 이미지와 전통적으로 소나무가 많은 도시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 불량건물이 철거된 경포해변에 해송을 식재하여 해송 숲은 조성하였다.

그 결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걷고 싶은 해변으로 변모하였다. 더욱이 해변의 해송숲 사이로 '하트로(heart路)'로 명명된 데크도로와 나무 그네가 설치되어 있어 해변의 소나무 숲 사이를 걸으면 해안을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는 공원림을 제공하였다.

강릉시의 경포해안의 해송림 복원사업은 쾌적한 경관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생태적으로도 해안침식을 방지하는 기능적인 면도 있다. 이와 같은 해안지대의 해송림

복원사업은 불량건물철거와 자연생태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와 신림청, 한국 산지보전협회가 공동주체한 '제5회 전국 우수산림생태복원대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한겨레신문, 2009).

〈표 4〉 경포해변 산림복원 현황

구분	합계	2008년
사업량	소나무 식재 자생식물(야생화외8종)	915본 52,520본
집행액(사업비)	742백만원	742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소나무 식재면적 자생식물	25,000㎡

자료: 강릉시(2009). 내부자료.

② 경포천 및 경포호 생태복원

경포천 및 경포호 생태복원 사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6년에는 경포천정비를 위하여 0.833㎞에 1,16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을 정비하였다. 2007-2008에는 경포호 생태습지조성(수질습지조성), 경포천 정비를 위하여 각각 2,840백만원, 3,980백만원을 투입하였다. 특히 강릉시는 2008년 10월부터 경포호 하구 옛 양어장 부지 29,960㎡의 면적에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경포천 생태습지원'을 조성하였다. 생태습지원은 생태연못 3개소, 생물이동통로 2개소, 조류관찰 오두막 및 수변데크 탐방을 데크도로 등을 설치하여 학습·교육의 장으로 조성하였다(강릉시c, 2009).

〈표 5〉 경포천 및 경포호 생태복원

구분	합계	2008년	2007년	2006년
사업량	생태습지: 39,601㎡ 경포천정비: L=3.45km 교량:1개소	29,960㎡ L=2km	9,641㎡ L=0.640km 교량:1개소	L=0.833km
집행액 (사업비)	7,987백만원	3,980백만원	2,840백만원	1,167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생태습지조성 (수질습지조성) 경포천정비	생태습지조성 (수질습지조성) 경포천정비	생태습지조성 (수질습지조성) 경포천정비	경포천정비

자료: 강릉시(2009). 내부자료.

③ 남대천 생태복원

남대천은 강릉시의 도심을 종단하는 젖줄로 시민들의 옛정취가 베여있는 정서적 모천이다. 강릉시는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하여 남대천의 생태를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1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심다리인 강릉교에서부터 하구 강릉항까지 4.4㎞ 구간에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고 수생태계의 다양성을 획복시켜 생명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강릉시c, 2009).

남대천 생태복원 사업은 식목 식재, 습지 조성, 보개량, 여울,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2008년에 1.2㎞ 구간에 걸쳐 1,31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이를 통하여 월드컵교에서 민속제가교간 구간에 수목을 식재하였고, 산채로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시민에게 동심으로서의 모천 남대천을 재인식시키고, 생태를 복원하는데 가시적 시발점을 마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 남대천 생태복원 사업현황

구 분	합계	2008년
사업량	L 4.4km(강릉교~공항교)	(1.2km 구간 공사 중)
집행액(사업비)	1,310백만원	1,310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수목식재, 습지조성, 보개량, 여울, 산책로 등	월드컵교~민속제가교간 수목식재, 산책로 조성

자료: 강릉시(2009). 내부자료.

2) 문화사업

(1) 강릉브랜드 '솔향강릉'

강릉시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솔향강릉(PINE CITY Gangneung)'을 개발하였다. 이 브랜드는 2007년 6월부터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개발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147백만원을 투입하였다. 이 도시브랜드는 설문조사를 거쳐 강릉시와 연관하여 상징되는 것을 선택하여 소나무를 도출하였다. 강릉시는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주는 소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관광휴양 도시와 소나무 고장 강릉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본초강목에는 "소나무는 모든 나무의 어른" 이라 하여 으뜸으로 삼고 있고, 푸른 솔은 생명의 창조와 번영을 의미하고 있어, 강릉시민의 드높은 기상과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 의 의미를 소나무를 통해 상징화하여 디자인하였다. '솔향강

릉'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지표와도 이미지가 부합하고 있어 향후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의 휴양 및 생태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향후 농수산물 등 강릉시에서 생산하는 청정농수산물에 대하여 '솔향강릉' 브랜드를 부착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강릉시의 도시브랜드 솔향강릉은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이 공동평가한 2009년 굿디자인(Good Design: GD)에 선정되었다(강릉시d, 2009). 이로서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정책과 보조를 맞춰 GD 선정은 강릉시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시의 이미지가 내부적 고객이 판단할 때는 육지지향적 특성이 강하나, 외부적 고객이 판단할 때는 해양지향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수도권의 방문객이 강릉시를 바라볼 때 인식하는 이미지는 동해바다이다. 따라서 향후 국민여가지대로서 강릉시가 전국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강한 이미지가 동해바다 이미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바다관련 대규모 여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표 10〉 소나무 명품거리 조성사업 현황

구분	기간	위치	내용	사업비
1차	2008. 4. 3 - 6.30	홍제고가도로-영동대학	-녹지분리대 조성: L=1000m, B=3.0m -소나무 식재 : 금강소나무 105본 -잔디식재 : 2,500㎡ -야간조명 : 1식	725백만원
2차	2008.10.17 -12.16	홍제고가도로쪽 L=82m 영동대학쪽 L=30m	-녹지분리대 조성 : L=112m, B=3.0m -소나무 식재 : 금강소나무 6본 -잔디식재 : 298㎡	72백만원

자료: 강릉시(2009). 내부자료.

(2) 소나무 명품거리

강릉시의 도시브랜드 '솔향강릉'을 형상화하고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강릉시는 고속도로 진출입공간(강릉교도소-강릉시청 앞 고가도로)에 1㎞ 구간에 지역의 나무인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강릉시가 강릉 소나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나무 명품화사업을 통하여 도시의 미관을 현격하게 격상시켰다. 사업전 이 구간의 도로는 중앙분리대로 이루어져 있어 고속도로 출행시 강릉시의 생태환경 및 문화적 향취를 지각하기가 어려웠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2차에 걸쳐 797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녹지분리대 조성, 소나무 식재, 잔디 식재, 야간조명 등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강릉시의 고속도로 및 도심진입 관문구역인 '소나무 명품거리'는 생태, 생명, 문화 지향의 강릉시의 생태 및 문화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아파트촌으로 향하던 시선을 강릉 금강송으로 향하게 하는 시선의 전화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서 강릉시의 소나무 명품거리는 도시의 솔향(소나무의 고장)으로서 강릉시의 품위를 높여주고 있다.

(3) 걷고 싶은 거리: 문화의 거리

강릉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시장거리에 문화적 요소를 강화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다. 이 사업은 2008. 5-2009. 5월까지 1년 이상 추진되었고, 사업비는 15억원 이상이 투자되었다. 강릉시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종단면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성남동 택시부광장-옥천동 대한생명빌딩 앞 거리에 13개소의 문자벤치, 분수, 광섬유, 수조조명, 하트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다.

〈표 11〉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현황

기간	위치	내용	사업비
2008. 5.29 - 2009. 5. 6	성남동 택시부광장 - 옥천동 대한생명빌딩 앞	○ 토목 -보도판석(화강석): 3,313㎡ -도로포장(아스콘): 1,329㎡ -보차도 경계석: 1,288m -도로경계석 : 1,131m ○ 조경 -수경시설: 계류시설 L = 93m -바닥분수 L = 10m (2개소) -시점부 하트조형물: 1점 -전기배전함: 조형틀 2개소 -문자벤치 : 13개소 "걷고 싶은 거리" ○ 조명 -가로등: 22주 -열주등: 10주 -광섬유 수조조명: 2개소	1,555백만원

자료: 강릉시(2009). 내부자료.

기존에는 이 거리는 쌍방차선으로 차량통행이 이어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방문객의 차량 주차로 인하여 주행이 불편했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이 거리와 금은방골목 방향의 도로와 연동하여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교통소통을 원활

하게 하였다. 아울러 일방통행으로 확보한 여유공간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전선의 지중화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조형물과 분수, 조명을 설치하여 무미건조한 시장거리를 활기있는 거리로 전화시키고자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조형물 중심으로 거리를 조성한 관계로 가로수 조경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도시의 역사나 향후 가로수 조경이 휴식터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 다양한 심미적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도시 거리의 가로수는 거리의 전통을 웅변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는 면에서 거리 조경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이 연구는 2009년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의 녹색성장 정책 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유사 도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즉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도시가 실천해야 할 실천대안으로 EcoCulture개념을 도시관리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의 도시성장정책의 생태사업, 문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녹색교통사업 등 4개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릉시의 생태적 복원사업으로 위대한 친환경 생태복원사업은 경포해안의 불량숙박업소 철거와 이 구역에 해안송림을 재생시킨 사업이다. 경포해수욕장 사빈에 소재하고 있던 숙박업소와 건물은 모두 철거하였고, 이를 해송으로 자연환경을 재생시켰다. 이와 더불어 경포생태습지원, 남대천의 친환경 징검다리 등에서 강릉시의 생태지향적 도시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강릉시 지역에서 사용하는 오리, 우렁쉥이, 종이멀칭재배 농법 등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강릉시의 생태 복원 및 친환경적 농법은 도시의 생태적 지속성을 촉진하게 된다.

둘째, 강릉시의 세계적인 문화자원은 녹색기술과 환경보전 중심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자각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릉시는 생태와 문화적 의미가 포함된 새로운 도시브랜드 '솔향강릉'을 개발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지향, 생태적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생태와 문화를 결합하여 '소나무 명품거리'를 만들어 지역의 생태와 문화적 향취를 지각시키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거리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적 매력을 강화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은 지역의 문화적 개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굴뚝없는 공장의 역할을 다하므로 도시의 녹색성장에 있어 유인적 문화자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유사한 예는 이탈리아 로마와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강릉시가 외부적 고객에게 '동해바다' 이미지가 강하므로 이에 대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강릉시는 해안을 연접하고 있고 해양이미지가 강하다. 특히, 향후 해양에너지로서 조력, 풍력, 심층수 등 다양한 사업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바다가 갖는 도전성, 첨단의류생산에 근거해 볼 때 향후 국민여가지대로서 강릉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레저스포츠·문화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오션돔 건립을 제안한다. 이것은 해양, 관광, 레저스포츠, 문화시설로서 4철 동안 운영되는 시설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오션돔 실패사례를 연구하여 강릉지역의 사업 성공을 위한 교훈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해양관광레저스포츠·문화센터 추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웰빙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연간 4천만이 찾는 국민여가지대에 국가적 거대시설 설치가 지역발전의 견인력을 갖게 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강릉시의 녹색성장정책은 EcoCulture와 매우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릉시의 대다수 정책중 생태사업과 문화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강릉시와 유사한 전국의 중소도시들이 지향해야 할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이 생태와 문화가 결합하여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 도시정부는 생태적 지속성,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릉시a(2009). 강릉소식 제일강릉. 45호(2009. 8.10).

강릉시b(2009). 명품경포백서: 경포는 지금 변신중.

강릉시c(2009). 강릉소식 제일강릉. 46호(2009. 8.25).

강릉시d(2009). 강릉소식 제일강릉. 41호(2009.6.10).

교토의정서(2002). 유넵프레스.

구아미(2009).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추진방향(안). 녹색성장과 강원도. 강원4대포럼·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43-66.

녹색성장위원회a(2009).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녹색성장위원회b(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반영운(2009). EcoCulture 개념을 도입한 저탄도 녹색도시 구현방안. 녹색성장과 강원도. 강원4대포럼 · 강원도 · 강원발전연구원: 67-87.

이정덕(2009). 생태문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일고찰.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Eco Culture: 44-53.

한계레신문(2009). 경포해변, 산림복원 해안 부분 최우수상. 13D면 지역(2009.9.2).

환경부(2008). 에코시티 해외사례집.

Leininger, M. (1991). Culture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A theory of nursing.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redistributed by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Inc., 2001).

Mathus, T. R.(1982). 인구론.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 Oxford World's Classics reprint]. (이민수 역). 박영사.

Meadows, D. H., Meadows, D. L., Randers, J. & Behrens Ⅲ, W. W.(1972).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Savitz, A. & Weber, K.(2008). 지속가능경영의 3대축. [The Triple Bottom Line. 2006]. (삼일회계법인 SBS팀 역). 거름.

Tylor, E.(1924 orig. 1871). Primitive culture. 2 vols. 7th ed. Brentano's.

Culture and Ecology-Oriented City Marketing: A Case Study of Gangneung City

HEO, Chung-UK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ourism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hcuk@kangwon.ac.kr

Abstract

This papers aims to focus on the city marketing as the green growth policy strategies using a case study of Gangneung City, Republic of Korea. In the case study it was verified the fields of urban growth including ecology, culture, alternative and recycled energy, green transportation system.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ity government had regenerated the coastal pine forest through removing unlicensed buildings which were squatted down in decades. Secondly, the city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value of culture that possessed various types of cultural asserts. Thirdly, it is possible to use and produce the ocean energy with the tidal power plant, wind power plant and green deep water because Gangneung City has the ocean-oriented image and is located the coastal region. Lastly, the city government has been utilizing the LED traffic light using solar heat and is going to apply the green car like an electric car.

This paper indicates the importance of the alternatives of the green growth-oriented policy through city marketing using the concept of culture and ecology. The city government will strive after an advanced triple bottom line with the ecological sustainability, cultural diversity and economic effectiveness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culture · ecology, green growth policy, triple bottom line, city marketing